

32년 반평생 쇯조각과 '동고동락'

여수 유일 대장장이 서인식씨

여수시 진남대장간 주인 서인식(60)씨가 시뻘건 화덕 앞에서 연 방 쇯을 두드리고 있다. 지난 1975년부터 30년 넘게 해오던 일이다. 이제 열만큼 쇯을 두드려야 낮이나 호미가 만들어지는지는 느끼고 알고 쇯 색깔만 봐도 얼마나 달궈졌는지 강도를 알 수 있다.



10여 평 규모의 서씨 대장간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낫, 호미, 괭이, 망치, 칼 등 각종 농기구와 생활 제품 20여 가지. 모두 그 혼자서 만들어 판다.

'여수의 유일한 대장간'이란 소문이 나면서 곧이 시장에 내다 팔지 않더라도 단골 손님들을 대장간에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씨가 대장간 일을 시작한 것은 1975년. 일제시대부터 대장간 일을 하던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 받아 반평생 화덕 앞에서 쇯조각과 '동고동락' 해왔다. "요즘은 일감이 많이 줄었다. 농번기인 봄철을 제외하면 혼자 일을 해도 일감을 소화하기에 큰 무리가 없지"

1980년대만 하더라도 종업원을 두고 일을 했는데 요즘은 일감이 줄어 서씨 혼자서 쇯을 달구고 두드린다.

셋째 30도를 웃도는 여름에는 러닝셔츠만 입고 작업을 한다는 서씨는 "일이 즐겁기 때문에 쇯을 두드리다 보면 뜨거운 줄도 모른다"며 "내가 만든 물건을 값지게 사용할 사람들을 생각하면 끔찍히 쇯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뿐"이라고 말했다.

서씨는 12일 "나이를 정해놓고 일을 하나, 배운 게 이것 뿐인데 힘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야지"라며 부지런히 망치질을 해왔다.

/여수=김승훈기자 kangsw@kwangju.co.kr

가수 루시드 폴, 스위스 화학회서 '최우수논문상'

가수 루시드 폴(본명 조운석·32)이 세계적 화학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3집 '국경의 밤' 발매를 앞둔 루시드 폴은 지난 9월 열린 스위스 화학회(Swiss Chemical Society : SCS)에서 '폴리머 사이언스(Polymer Science) 부문' 최우수논문상 수상자로 뽑혔다.

루시드 폴은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스위스 로잔 공대에서 내년 5월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연구하고 있다.

광주세관, 장애우 시설 등에 '국화꽃 나눔행사'



광주세관(세관장 김두기·오른쪽 네번째)은 12~16일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지원받은 수출입업체, 장애우 시설 등에 국화꽃 화분을 전달하는 '국화꽃 나눔행사'를 펼치고 있다.

“일찌감치 꿈 정한 뒤 멀리 보고 달렸어요”

■카이스트·포항공대 동시 합격한 동아여고 2년 이 유정 양

“영재”란 말은 대학으로부터 처음 들어봐요.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와 포스텍(POSTECH·옛 포항공대)의 고교 조기졸업자 수시모집에 동시합격한 광주 동아여고 2학년 이유정(16)양의 소감이다. 초·중학교를 거치면서 영재교육원 선발에 번번이 떨어졌던 일이 뇌리에 깊게 박혔던 탓이다.

“영재”란 말은 대학으로부터 처음 들어봐요.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와 포스텍(POSTECH·옛 포항공대)의 고교 조기졸업자 수시모집에 동시합격한 광주 동아여고 2학년 이유정(16)양의 소감이다. 초·중학교를 거치면서 영재교육원 선발에 번번이 떨어졌던 일이 뇌리에 깊게 박혔던 탓이다.

이양은 “올림피아드 성적 등이 없어서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그 선배의 말에 힘을 얻어 도전했다”며 “막상 합격을 하고 보니 고3 생활을 해야 하는 친구들을 두고 나만 간다는 생각이 여러 감정이 교차한다”고 말했다.

도전을 결정하고도 한참 동안은 주눅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대개 과학고나 자사고 등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주로 조기졸업자 전형에 합격하기 때문.

입학 전형은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수상실적 등으로 평가하는 1차와 과학 및 수학 과목으로 실시되는 구술 면접고사를 치르는 2차로 진행

됐다. 카이스트는 영어 면접도 실시했다. 이양의 내신 점수는 298.7점(300점 만점)이고 영어 성적은 토익 825점이었다.

“카이스트의 경우 대기업의 입사시험처럼 지식 보다는 사고를 따지는 것 같았어요. 월드비전 한비아 구호팀장이 진행하는 ‘지도밖 행군단’ 캠프나 한국경제신문 생글기자단 활동 등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아요.”

국제기구에서 이공계 일 하고 싶어요

주위의 농담처럼 “말썽야 본전”이란 생각이 들어 부담을 크게 가지지 않은 것이 장점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일반 고교 출신이라는 사실을 심본 활용한 것이다.

교내 중간고사를 치를 때는 대입 준비와 겹쳐 혼란을 겪었다. 떨어질 것에 대비해 중간고사 역시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 포스텍에는 생명과학과로 지원했고, 카이스트는 과가 정해지



지 않았다. 이양은 카이스트의 등록 마감인 27일 전까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행복한 고민을 해야 한다.

이양은 “국제기구에서 이공계열 관련 일을 하고 싶은 꿈을 갖고 영어와 과학 관련 공부를 꾸준히 해왔다”며 “꿈을 일찌감치 정한 뒤 멀리 보고 달려온 것이 좋은 결과를 낸 것 같다”고 활짝 웃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예술로 봉사의 삶 실천 ‘참 미술인’

‘원진미술대상’ 수상한 서양화가 조규일씨

“미술가는 지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만큼 지역을 위해 봉사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양화가 조규일(74·보성군립백민미술관장·사진)씨가 12일 미술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원진미술대상’을 수상했다. ‘원진미술대상’은 사회에 공헌한 예술가와 예술후원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낸 김양균씨가 독립운동가였던 부친과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사재를 출연, 지난 2004년 제정했다.

서양화가 오지호 화백의 수제자인 조씨는 평생 예술을 통해 봉사의 삶을 실천한 미술인이다. 지난 1993년 미술보 350여점과 주거공간을 매각, 전액 보성군에 기부함으로써 보성군립미술관의 터를 닦는 등 지역민들에게 미술 향유기회를 제공했다.

기 자선전, 백범 김구선생 기념사업회 금 마련전 등 수많은 성금 모금전에 조건없이 작품을 기탁해왔다.

“1978년 유럽을 여행하면서 현지 작가들이 미술품을 지역사회에 내놓고, 미술관을 지어 정부기관에 기부하는 것을 보고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미술인들도 이제는 작품 기증이나 기부로 사회에 봉사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미술에서 소외된 시·군지역에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예술을 사랑하는 지역민들이 없으면 예술가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희를 훌쩍 넘긴 나이에도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최근 젊은 미술인들이 무작정 현대미술을 추종하는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요즘 젊은이들은 예술의 기본을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탄탄한 기본기를 갖춰야 어떤 미술을 하든 좋은 작품



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내년 10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를 가질 예정이라는 조씨는 “10대 때의 작품을 비롯해 최근작까지 모두 140여점을 선보일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 /사진=고경석기자 ksgo@

아버지 부시 83세에 ‘깜짝 스카이다이빙’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아버지인 조지 H.W.부시 전 대통령이 8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10일 스카이다이빙에 성공, ‘노익장’을 과시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에 세워진 자신의 대통령 기념관 재개장을 축하하기 위해 이 같은 ‘깜짝쇼’를 준비했다.

특히 83세인 나이도 나이인 데다가 지난 1월 엉덩이 교정수술을 받았었다는 점에서 이날 그의 ‘깜짝 스카이다이빙’은 눈길을 끌었다.

부시 전 대통령의 스카이 다이빙은 이번이 생애 6번째이며 지난 2004년 이후 3년 만이다.

조종사 출신인 부시 전 대통령은 2차대전 당시인 지난 1944년 태평양 치지마섬에서 그의 항공기가 격추돼 낙하산으로 비상탈출한 바 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3년 전과 마찬가지로 미 육군의 낙하산단원인 ‘골든 나이트’ 출신 전문가와 함께 같은 낙하산을 타고 하늘에서 뛰어내렸다.

조정래 광주교통 대표

‘육운의 날’ 대통령상 수상

조정래 광주교통 대표는 13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 21회 육운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조 대표는 이날 육운산업발전 및 국민교통서비스 향상에 힘을 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사

◆교육인적자원부

◇서기관

▲전남대학교 김태일 ▲목포대학교

이돈석 ▲순천대학교 육기연 ▲ 김세환

◇사무관

▲전남대학교 최갑철 ▲ 김경만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최용철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김병순씨 차남 근우(대주건설) 군 고석남(광주 남부서 경무과장)씨 장녀 주희(비아초교)양=17일(토) 오후 1시 삼목 웨딩홀 본관 3층 무궁화홀.

▲노재숙(광주시내버스사업조합 상임부회장)씨 장남 진영은 남훈기씨 장녀 수연양=17일(토) 오후 1시 10분 상록화관웨딩홀.

▲김양신(광주 서부경찰서 경리계장)씨 장남 석준(강진경찰서)군 고광훈(사업)씨 장녀 지나(서부경찰서)양=18일(일) 낮 12시40분 예벌루션웨딩컨벤션 3층 컨벤션홀.

▲손사분씨 장남 하성호군 왕숙근씨 장녀 승영화양=18일(일) 오후 1시50분 버건웨딩홀 1층 다이아몬드홀.

▲안경태씨 장남 병일군 장명수

씨 장녀 만덕양=17일(토) 오후 1시 30분 순천시 탑웨딩홀 1층 다이아몬드홀.

알림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 문의 363-2240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지원 및 심리 치료 등 One Stop 서비스. 232-1375. http://forchild.or.kr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 보호소 무료 상담=아동 일시 보호를 원하는 경우,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222-

1095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227-8877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부 검찰청 민원실 2층.

동창·동문회

▲복성중 제 13회 동창회(회장 박중우) 월례회=13일(화) 오후 6시30분 바다와 육지. 525-7900

▲복성중 제 14회 동창회(회장 한상업) 월례회=14일(수) 오후 7시 미연복지. 226-4743

▲복성중 제 15회 동창회(회장 정본진) 월례회=15일(목) 오후 6시30분 삼해식당. 225-3233

▲재광 보성중 27회(회장 구재근) 정기총회=15일(목) 오후 7시 일출나지. 376-2646

▲곡성 중앙초교 제 54회 동창회(회장 박정현) 한마음 축제=17일(토) 오전 10시 곡성 군민회관. 222-3838

중친회

▲전주리씨 대동총약원 광주·전남 이화회(회장 이정근) 월례회=13일(화) 오전 11시 지원 회의실. 225-5631

▲창녕조씨 광주·전남 청년회 모임=15일(목) 오후 7시 광명해물가든. 010-6688-8983

▲가락광산구 중친회(회장 김명호) 월례회=16일(금) 오전 11시 가락회관. 944-2988

▲창원황씨 광주·전남 중친회(회장 황안선) 모임=16일(금) 오전 8시 광천동 터미널 맞은편.

향우회

▲재광 장흥군 향우회(회장 김후식) 월례회=13일(화) 오후 7시 그랜드호텔 11층. 011-611-6208

모임

▲국제와이즈맨 상무클럽 월례회=13일(화) 오후 6시30분 불로가물치.

세 백의(삼양사 상무)·찬(로렌시아 건설 대표이사)씨 부친상 박노련(화가)·현인환(단국대 공대학장)씨 부부상=발인 14일(수) 그린장례식장 7분향소. 250-4407

▲박금담씨 별세 성모(한국유택스제약(주) 부장)·상현(한국농촌공사 진도지사 과장)·환삼(신용보증기금 차장)·성심·성희·성란(우리은행 과장)씨 부친상 문미옥·이미향(진도농협 과장대리)·장금주(인천 한길초교 교사)씨 시부상 구홍덕(전남대 평생교육원 교수)·윤영국(고려시멘트 장성공장 과장)·민희준(형성산업 대표)씨 부부상=발인 14일(수) 금호장례식장 301호. 227-4382

Advertisement for 'Gimhojang' (金浩장) restaurant, featuring phone numbers and location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Gijoknam' (기적남) restaurant, featuring phone numbers and location information.